

요한마음속에 모든清淨한法을 斷지안코 가져어있다. 참으로 그들이 모든功德을 平等히 비추고 그리고 여러위치지안는것은 마치 희마라야山과 가르며 淨穢好惡에 거리지안는것은 마치 大地와 가르며 모든迷妄의더러운것을 써서버리는것은 마치訪은물과가르며 一切煩惱의나무를 刈여버리는것은 마치 大火와가르며 모든世界를 遊歷하되 아무것도 막지못하는것은 마치 大風과가르며 一切그것에 執着치아니하는것은 마치 虚空과가르며 一切은세상에 墮를지안는것은 마치진흙속의蓮華와가르며 衆生을 迷의世界에서 대러내오는것은 마치큰수레와가르며 眞理를 불오지저迷한者를 깨오게하는것은 마치 우리들 불오는黑雲과가르며 甘露의法을 내리어 衆生을 축이는것은 마치大雨와가르며 惡魔와 異說者에게 動搖되지안는것은 마치 金剛山과가르며 모든善事에 있어서 第一人者인것은 마치 梵天王과가르며 一切를 頂히감추는것은 마치 尼拘類나무와가르며 容易하게 맛나기어려운것은 마치 優曇鉢華의꽃같다. 異端外道를 威伏하는것은 마치金翅鳥와가르며 功績을 貯蓄치안는것은 마치 自由로운小鳥와가르며 무엇이든지 지지를안는것은 큰 소와가르며 무엇이든지 服從케하는것은 큰코끼리와가르며 무엇이든지 두려워아니하는것은 마치獅子王과가르며 平等普通의大慈悲는 마치 虚空과가르다

七

이를 要컨대 釋迦의理想社會는 어디까지든지 超科學의超常識的으로 더구나 그것이 西方十萬億國土의存在하는곳에 더욱이 實在味를 稀薄케하는威이있다. 그러나 西方十萬億土라함은 經典慣用의象徴的筆法으로 西方이라고하는것을 人間最後의願欲, 窮極理想을 보인것이요 十萬億土라하는것은 離惡한現實世界를 超絶함이 遙遠하다는것을 나타낸것에 지내지안는것이다.

을 要컨대 現實苦에 부딪고있는生類에 對한釋迦의사람이 얼마나 偉大하고 痛切하며 또 그 救濟의理想이 얼마나 高遠하며 徹底的인지를 생각하는同時에 이러한大한思想을 내은 古代印度民族의優越性에 驚歎을 禁치못하는바이다. (終)

釋者附記—本圖中引用大無量壽經의引文는 寶鏡廣佛經譯本을 參照하여 譯한것이니 勿코히 釋者에게는 上篇과 下篇과 不得已 原文筆者의 意譯한日文의 依한가함과 文章의 明確한 缺한곳이잇스니 讀者는 이를諒하라.

朝鮮佛敎青年會에對하야

金 三 爲

우리는 우리佛敎의 世界的新光明을約束한朝鮮 地마은 青年그사람을사랑하지아니하고 青年이青年佛敎青年이다. 文化가發達된곳에는 青年의모듬을 頂首任을失한것이다. 朝鮮佛敎가所謂維新이라는名譽重히하고 文化가幼穉한곳에는 青年의모듬을 標下에서 한참소리쳐 棉花叢林을들어서 震激하야待한다. 그럼으로文明한집안은 自由의모듬을사랑하고 矛盾과暴力으로排除하는理性이있다. 文明이 興한그나라는 青年이모다健壯하고 文明이衰한그나라는 青年이모다微弱하다 青年은그國家나 그社會에 가장重鎮이되고棟樑이된다. 무엇보다도 青年은人間에서 唯一無二한寶物이고 迷津의棹筏이다. 하기에어느時代 어느곳에 青年이업지는아니하

웃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생각한다면 全朝鮮佛敎가 큰羞耻이며 青年들의 큰弱力의 欠過가 아닌가? 만일 朝鮮佛敎에서 青年會하나 이었다 하면 이것을 누구나 鼻笑치 아니하며 社會와 民衆의 大罪咎가 아닌가? 朝鮮佛敎에 弱力이 여기에서 나타났고 朝鮮佛敎의 衰頹가 여기에서 發芽됨을 누구나 짐작하고 論評할 수 있다. 中央佛敎나 地方佛敎가 至今까지 이만치 基礎가 始作됨에 青年佛敎의 모듬이 업다 함은 이것으로 內部的 陳舊未芟됨을 알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내간 것을 다시금 贊說再論할 必要도 업고 是非에 善惡을 가져 重言復言할 수 도 업다. 至今으로 부러 改絃而易轍하고 溫古而知新하야 昨非를 覺하고 今是를 作하야 前衰를 扶健하야 今興을 把持하면 이것이야름 다 是佛敎의 事業이고 青年佛敎의 主義가 아닌가? 이것을 잊지 않고 在京한 青年有志는 昨冬에 朝鮮佛敎 青年會를 다시 復興하야 看板를 中央에 걸고 宣言書까지도 地方各靈林에 飛檄하얏으며 오는 春和時에는 青年大會까지 應當 招集하야 朝鮮佛敎의 現在及 將來를 만이 討議하고 研究하야 論어가는 朝鮮佛敎를 扶活하며 衰頹하는 朝鮮佛敎를 健康케 하야 佛日이 再興하고 法

鼓가 再鳴하며 社會가 安穩하고 民衆이 享樂한다면 이것이 佛敎의 眞理가 아니며 青年佛子의 責任이 아닌가? 그럼으로 青年佛子는 이어나자 奮闘하자!  
 朝鮮佛敎가 衰頹하다 青年이 健壯한가?  
 朝鮮佛敎가 病弱하다 青年의 醫師가 있는가?  
 만일 朝鮮佛敎를 爲한다 是僧侶가 있다면 반듯이 생가 할 것이고 是佛子나고 佛이 現될 수 있다.  
 屋後青山속에 如山大虎가 世上에 나타와서 사 람을 노리고 暴威橫行이 甚하거면 이것을 劫내고 두 려워하지 아니한다면 半듯이 二猛虎의 鬪이 될 수 있다. 朝鮮佛敎는 至今이런 現狀에 있다. 適切한 比喩에 大法門임을 알아야 된다. 그 猛虎가 달려드는 威力에 는 防衛의 劔戟이 업는 사람은 半듯이 佛의 입에 進言 가 될 수 있다. 그럼 生命을 살리고 저하는 때에는는 半듯이 防禦할 準備하야 한다.  
 이 比喩品이 善無頭無尾하야 보는 이가 疑心할 處 하나 矛盾의 比喩를 正法에 注함도 이것이 그리 無味치는 아니 할 수 있다. 法華經의 比喩品보다 잘 알고 보면 佛法의 眞理를 覺悟할 수가 있다.

朝鮮佛敎에는 活潑함이 업다. 그러나 役者가 업다.

佛敎寺院도 改建하야 하고! 누가?  
 佛敎聖經도 刊行하야 하고! 누가?  
 佛敎眞理도 研究하야 하고! 누가?  
 佛敎財産도 潤殖하야 하고! 누가?  
 佛敎役者도 養成하야 하고! 누가?  
 佛敎思想도 統一하야 하고! 누가?  
 佛敎敎理도 宣傳하야 하고! 누가?  
 이러한 것을 누가 할 것인가? 老德宗匠은 年高氣衰하야 氣息이 奄奄하며 그리고 時代社會에 素昧하야 事業行進에 成功이 적을 수 것이오 每當 新舊에 主見이 相反하야 모든 事에 支障이 있을 수 것이다. 그럼으로 朝鮮佛敎를 時代에 應하야 다시 蘇生케 한다면 老德宗匠만으로는 不可할 수 것이오 青年佛子가 잇서야 하며 青年들이 實社會에 나선다면 半듯이 老德宗匠은 青年을 指導하야 주어야 할 수 것이며 青年도亦是 老德宗匠의 老婆心切한 그 마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佛敎를 光輝케 하야 世界衆生을 教化하고 世界萬類을 救濟하면 이것이 佛子의 主義本願일 수 것이다.  
 朝鮮佛敎를 본드러가자면 現狀으로 보와서는 青

年들이 나서야 하며 朝鮮佛敎를 爲한다면 한 때라도 青年佛敎가 되어서 活潑해서 獅子吼를 내거나 하면 朝鮮佛敎는 日甚一日로 衰頹하야 말 수 있다. 環境에서는 朝鮮佛敎를 睥睨하야 엿보는 惡魔가 만코 僧侶自身도 作戲하는 輩가 있다. 이러한 亂麻의 現狀을 糾正掃清치 아니하면 瞞妄不安과 恐怖가 있을 수 것이오 危險과 憂患이 있을 수 것이다. 그럼으로 모든 것을 推察하야 보면 青年佛子는 한 곳에 모뎀하야 이러한 現狀에 잇는 佛敎를 본드러가야 한다. 最後로 말하고자 함은

- 一、老德宗匠은 青年들을 指導하야 青年會로 하야 普活社會에 敎役者가 되게 할 수 것이오.
  - 二、青年佛子는 일어나서 中央에 잇는 佛敎 青年會에 加入하야 完全한 佛敎를 革新케 할 수 것이오.
  - 三、오는 今春大會에 各地方有志 青年은 誠心을 가지고 만히 모뎀서 朝鮮佛敎를 研究할 수 것이다.
- 이것을 우선 두어 말하야 하고 다시 後期를 보와서 業를 稽考하야 하고 한다.